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2008. 10. 15(수), 18(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의 역사의식이다. 많은 점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다양성을 가졌다. -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인종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그러나 유대교는 독특한 기억을 가진 백성의 종교이며 이는 수 세기에 걸쳐 발생한 성경의 사건들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이들의 정체와 소명을 형성하였다.” (구약 학자 버나드 앤드슨,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서론

- 신약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
-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관과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당시의 상황

1. 4 복음서(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 각 공동체는 다른 필요를 가지고 복음서를 접근함.
- 마태** 교회의 책, 예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 부활은 예언의 성취, 유대인 공동체
- 마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수난 받는 메시아, 수난을 강조
- 누가**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의 백성들에게 관심, 소외된 자에대한 관심
- 요한** 신학적인 책, “나는.... 이다”라는 표현,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 헬라인 공동체를 염두에 둠

2. 말라기 이후, 주님 오시기 전 400년

다니엘의 예언: 알렉산더, 애굽의 프톨레미, 시리아의 셀루키드, 마카비, 그리고 로마의 순서

1) BC331년까지: 구약의 마지막은 바사의 통치. 유대인 귀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아

2) BC335년~323년 알렉산더 대왕: 바사왕의 전쟁에서 승리. 335년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 323년에 죽음.

3) BC323-204 애굽의 프톨레미 시대:

알렉산더 사후, 제국은 네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됨.

애굽의 프톨레미왕가(Ptolomy)와 시리아의

셀루커스왕가(Selucus I)가 유대를 다스림. 애굽과 시리아간의 갈등. 히브리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됨(70인역).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때에, 유대인들은 가장 암울한 역사를 가짐. 헬라 문화를 강요하면서 히브리 문화를 금지함. 예루살렘 성전은 올리피아 제우스 신전으로 이름함.

4) 마카비시대: BC166-37년

5) 로마의 점령: BC37년~

3.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1) 포로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세상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울 이상적인 통치자가 올 것.

그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

2)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에 걸쳐서 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인간의 불완전한 통치를 대신할 완전하고 의로운 통치.

3) 수많은 문헌들이 나타남.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함.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

4) 종말에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면서 파당*들이 생겨남.

4. 마태의 족보: 새로운 시대의 선포

1) 예언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파당

가) 사두개인: 산헤드린의 주도적 역할

나) 바리새인: 평신도 운동

다) 에세네파: 세례 요한

라) 젤롯당: 유대애국주의자, 무장

* 주님은 이들을 다 거부하심

2) 고난 받는 종: 다말, 라합, 우리야의 아내, 마리아의 잉태

3) 하나님의 때:

- 아브라함에서 다윗: 14대
-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14대
-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14대

5. 복음서

1) 전체 신약의 기본 신학적 틀: 종말론적

2) 유대인의 종말론적 소망 (참고▶)

- 주님의 오심, 죽음, 부활, 성령 주심은 모두가 마지막의 옴에 대한 기대와 연결됨.

3) 그 과정:

- 마지막의 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
의의 시대(사11:4~5), 평화의 시대(2:2~4) 성령의 충만한 시대(골2:28~30). 죄와 죽음은 사라짐(슥13:1, 사 53:5)
- 세례 요한이 주님을 세례 주었을 때 메시아적인 열정은 절정에 도달.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 이제 새 시대가 시작할 것
- 예수가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죄인을 영접하심 등. 이 모두가 새 시대의 표적들. 모두가 과연 그가 오실 분인가를 지켜 봄.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심.
- 그러나 영광스러운 연속이 기다림.
3일 쯤 부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행 1:6).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 성령을 부어주심.
- 행 3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지막 때가 최종적인 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작이 시작된 것임. 따라서

마지막(Eschaton)

현 시대 (사탄의 때)	올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때)
(특정)죄, 병, 귀신 들림, 악한사람이 승리	성령의 임재, 의, 건강, 평화

● 초대교회와 우리의 문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옛 시대가 남아 있는가?

현 시대 (시작되고 사라져감)	다가올 시대 (결코 끝이 없음)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미(Already)	아직(Not Yet)
의	완전한 의
평화	충만한 평화
건강	병과 죽음이 없음
성령	완전한 충만

● 이스라엘의 새 달력

1. Aviv(출 23:15)
니산 Nisan, 3/4월, 유월절 희생
2. Ziv(왕상6:1, 37),
티아르 Iyyar, 4/5월, 유월절 후
3. 시반 Sivan, 5/6월, 강림절
4. 담무스 Tammuz
6/7, 금식일
5. 아브 'Av, 7/8월, 금식일
6. 엘룰 'Elul, 8/9월
7. 'Ethanim(왕상8:2)
Tishiri, 9/10
8. Bul(왕상 6: 38)
Marheshvan 10/11
9. Kislev
11/12월 (25-2, Tevet Hannukah)
10. Tevet, 12/1, 금식일
11. Shevat, 1/2

마지막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님.
 “Already but not yet!”

-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종말론적인 백성이 되기를 배웠음.
 이들은 두 세대 사이에 살았음. 끝의 시작과 끝의 완성사이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end and the
 consummation of the end).

6. 신약의 종말론적 견해

●유월절과 출애굽; 12장-13장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 자신들의 달력을 갖는 일.
 사회, 문화적, 종교적인 일치를 위한 일 -애굽에서는 강과 태
 양이 시간을 다스림.

●레위기에 나타난 절기들:

- 1) 안식일: 일곱째 날
- 2) 유월절: 하루, 레위기23:5(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 3) 무교절: 7일, 레위기 23:6-8(첫째달 열 닷새날)
- 4) 첫 열매 절기: 레위기 23:9-14(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
 사장에게 가져갈 것) 보리 수확의 첫 곡물
- 5) 오순절: 하루, 23:15-22(두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보리 수확의 끝이며 밀 수확의 시작
- 6) 나팔절: 하루, 레위기 23:23-25 일곱째달 첫일(나팔을 불
 어 기념할 날,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
 제를 드릴지니라) civil new year.
- 7) 속죄일: 하루, 레위기 23:26-32 일곱째 달 열흘일
- 8) 초막절: 7일, 레위기 23:33-43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
 와 인도하심